

너와 내가 다름없다면 '날마다 좋은 날'

'하나의 삶(Live As One)' 을 위하여

2012 런던올림픽 슬로건

7월 27일 세계가 런던에서 하나가 된다. 2012런던올림픽으로 한마음이 된다.

근대 올림픽을 부활케 한 쿠베르텐은 "올림픽의 의의는 승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데 있고,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보다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강령만 봐도 오늘날 과정이 무시되고 결과만이 중시되는 세대에서 올림픽 정신만큼 아름다운 것도 보기 드물다. 때문에 올림픽은 세계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문화활동이다. 다섯 대륙을 상징하는 오륜기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올림픽의 좋은 개최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올림픽 경기를 두고 크고 작은 잡

벌개로 존재하면서도 결국에는 온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증명된다. 최근 태국의 대홍수가 발생했으나 그 피해는 태국인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이 함께 입었다. 컴퓨터 핵심부품인 하드디스크를 제조하는 주요 메이커의 공장이 태국에 위치한 까닭에 수해로 생산이 중단됐고, 결국 컴퓨터 사용자들이 부품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또, 지구 반대편 아랍의 경제 불황은 곧장 유가상승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다. 수년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의 여파가 오늘날까지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 봐도 전세계 국가들은 절대 서로 상관없지 않다.

우리 사회는 여러 갈등을 겪고 있다. 불교계를 비롯한 사회구성원이 갈등의 봉합과 화해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 갈 길은 멀다.

종교간 하나의 삶이 필요하다. 불교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수의 스님들이 이웃종교인들과 교류해 오고 있다. 생명평화결사 도법 스님, 종교위원장 김경일 신부, 부운영위원장 김민해 목사의 종교를 초월한 우정은 이미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다. 또, 서울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도 수유1동 성당 정무용 주임신부, 송암교회 김경근 담임목사 등 각박지역 종교지도자간 종교평화 실천도 눈에 띈다.

부처님 자비 실천의 방법으로 다문화활동을 하는 불자들이 많다. 그 예가 한국다문화센터 공동대표 보선 스님과 천태종 서울 명락사 무원 스님, 다문화가정 자립음식점 설립한 성원 스님, 다문화모자가족 돕기 등 펼치고 있는 진오 스님 등이 있다.

사회 양극화에 따른 계층간 하나의 삶 또한 강조된다. 고소득과 저소득, 사업자와 근로자, 남과 여 등 계층별 갈등 해소에 필요한 지혜·나눔이 절실한 때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불교인권위원장 진관 스님, 100일 범문으로 세상과 소통한 정토회 법륜 스님, 트위터로 세상과 소통하는 혜민 스님, 선재지역아동센터장 상덕 스님 등 다수의 스님들이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나의 삶'은 학문간에도 필요하다. 최근 독자적인 영역을 허문 '통섭'이 학문의 경향이다.

'하나의 삶'을 사는 지혜, 부처님 가르침을 나와 내 주변에서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세상은 정토가 돼 있을 것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대화협력에 불교나서

종교평화

2011 신묘년(辛卯年)은 유독 종교계에서 잡음이 많았던 해다. 종교간 갈등과 종교 내부의 다툼으로 '성(聖)이 속(俗)을 걱정해야 하는데 속이 성을 걱정하는 시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종교간 대화와 협력, 평화 공존에 대한 노력도 적지 않았다.

불교계, 타 종교계에 먼저 손 내밀다

수년 전부터 진행된 종교간 갈등 원인에는 개신교의 공격적인 포교방식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조계종이 먼저 종교화합에 손을 내밀었다.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 본부장인 도법 스님은 8월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 초안을 발표했다.

이 초안은 "우리 불교인은 이웃 종교를 인정으로 이웃으로 생각하는 데 충분하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이웃 종교인들과 함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해 신성한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이 선언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산위기에 처했다. 이런 와중에도 천주교, 불교, 개신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국내 7대 종단 대표는 9월 사상 첫 북한을 동시에 방문해 남북 화해와 단합을 위해 북한 종교인들과 교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화해의 노력을 이어나갔다.

사랑과 자비 전달에는 종교 구분 없어
종교간 화합에는 서울 한 성당과 교회,

사람이 함께 진행한 소외된 이웃들 돕기가 모범적 사례로 꼽힌다. 바로 11년째 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함께하고 있는 서울 강북구 화계사와 수유1동성당과 송암교회다.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과 정무용 천주교 서울대교구 수유1동 성당 주임신부, 김정곤 한국기독교장로회 송암교회 목사는 매년 12월이면 3개 기관을 돌아가며 '난치병 어린이 돕기' 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들 3개 종교기관이 지역의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손잡고 나선 것은 2000년으

했다.

2011년 2월 1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종교인평화회의' 창립대회 기념 공연은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여주 신복사, 동수원교회, 원불교 수원교당 합창단의 종교 간 벽을 허무는 화합의 하모니에 종교 앞에 너와 내가 따로 없었다는 찬사가 이어졌다.

사실 이런 종교간 화합의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계속돼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국 사회의 종교 간 평화, 갈등, 분쟁 등을 지수로 표현한 것이다. 한 해 동안 종교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건들을 수치화한 것이다.

종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 상황을 이제 더 이상 종교에만 맡겨놓지 않고 시민사회가 직접 챙기겠다는 시도다.

이찬수 강남대 교수를 비롯한 7명의 연구자(종교학자, 철학자, 법학자)가 참여하고 있는 종교평화지수 프로젝트는 2011년 5월에 첫 발표를 시작으로 총 4회 학술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정부 또한 국내에서도 날로 심화되는 종교간 갈등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30일 '종교 간 이해 증진 및 평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가칭)'의 연구 용역을 의뢰했다.

인하대 산학협력단이 진행한 연구결과 "종교차별로 인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경우 이를 보다 쉽게 신고해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종교 간 존중과 배려를 위한 제도, 또는 보충적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법률안 제정의 필요성이 보고됐다.

종교평화법 제정은 사법권 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그 필요성이 강조되며 2012년의 화두로 자리할 전망이다.

2012년 용의 해, 한반도 평화와 우리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들을 위한 일에 종교간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종교 간 평화 없이 세계 평화가 없다"는 세계적인 신학자 한스 킹(Hans King)의 말처럼 2012년 각 종단의 평화선언과 함께 종교화합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길 기대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평화와 자비, 사랑을 전한다는 대의 앞에 종교 벽은 없다

MB조찬기도 등 종교편향 정국에서도 화합의 노력은 계속돼

제주도 평화섬 정착, 북한돕기, 세계 구호 등 연대 기대

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그동안 연합바자회 등을 번갈아가며 주관, 해마다 20명의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성금을 전달해왔다. 해마다 여는 바자회에는 각 종교기관의 신앙인들과 기업들이 내놓은 물품들이 값싸게 판매되고, 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등이 어우러져 지역 주민들도 끼여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처음 연합바자회가 진행될 당시에는 타 종교와의 연합행사라는 이유로 각 종교 내부에서 반발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 뜻과 취지 앞에 종교의 벽은 허물어졌다.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은 "불교에서의 극락도 모든 존재의 가슴속에 사람이 넘쳐 날 때 구현되는 것"이라며 "사랑은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망 속에서 이웃에 퍼져나갈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

생명평화결사 운동이다. 도법 스님과 김경일 신부(운영위원장) 등이 주축이 된 생명평화결사(단장 권순용)는 2011년 3월 한 번도 생명평화를 위해 다시 100일 전국도보순례길에 올랐다. 지난 2001년 지리산 댐 반대, 2004년 제주 평화의섬 기원에 이은 것이다.

2012 종교평화지수, 종교평화법 제정될까? 학계 연구 지속돼

종교계의 노력과 함께 종교평화를 위한 정부, 시민사회계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다. 이중 한국종교연합(URI Korea)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종교평화지수 프로젝트는 매우 의미 있는 시도이다.

2012년 발표될 종교평화지수는 오늘날

LEADER

국제불교지도자협회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3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대법회

- 국제 포교사(승려, 재가 법사) 품수식 -

출가승이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중생교화, 인간방생의 사명아래 승가의 본분을 이루고자 봉사와 헌신의 맘을 흘려 보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고 환경에 오염되어 흐트러진 자신의 모습에 때로는 포살과 참회의 기도로 더욱 정진하곤 합니다만, 웬지 부족함을 늘 느끼곤 합니다.

국제불교지도자협회에서는 300여 종단을 불문 어느 종단의 스님이든 모두가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이라도 새롭게 출가승으로 거듭나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겠다는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 공화국 종교성의 후원과 미얀마 연방 승가회 원로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具足戒를 주실 三師 七證 大元老 큰스님들을 모시고 상좌부 불교 승려로 거듭나는 남방불교 비구, 비구니 수계를 50분의 큰스님들과 5백여 스님들의 독경에 맞추어 봉행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 법식, 국제 금강 계단을 마련했습니다.

연방 승가회 계첩(戒牒) 수여

- 일 시 : 2012년 2월 24일, 수계의식 7박 8일
- 장 소 : 미얀마 양곤 연방 승가회 원로원 (종교성내)
- 참가신청 :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층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02) 733-5670, 5665 신청서 1통, 승려증 사본1통, 사진3매, 여권을 우편으로 우송.
- 서류마감 : 2012년 1월 20일 (빠른 접수 부탁드립니다)
- 동참금 : 210만원
 - 법종단 차원으로 어느 종단, 어느 스님이든 모든 스님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주 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한국주재미얀마문화원, 미얀마 관광청
후 원 : 미얀마연방공화국 종교성, 미얀마 연방 승가회